

전남도, 전지훈련 최적지 '자리매김'... 801억 경제 파급효과

(약 1년간)

62개 종목, 84만명 선수단 방문
지난 시즌 73만명비 15% 늘어
자체 예산 19억 투입해 유치 지원

온화한 기후에 천혜의 경관과 맛깔스런 남도음식을 두루 갖춘 전남이 국내 전지훈련 성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시즌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를 위해 62개 종목, 2436개 팀, 연인원 84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아 80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시즌 73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을 잇따라 성공 개최 하면서 방문자가 늘었고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지훈련 주요 종목은 축구, 야구,



전남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들.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 전제 유치 종목의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순이다.

시·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 체험 지원, 스토브리그 개최비 지원 등 자체 예산 19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강진군은 전국 규모 펜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한 곳이 부족해 장흥군과 협력사업을 추진, 군(郡)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선수단 3000여 명 규모로 3일간 열리는 제 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해남군은 전문트레이너 5명이 상주하는 동계훈련재활센터를 무료 운영, 1600명이 이용했고, 완도군은

수중운동, 수압마사지 등 해양치유센터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43개 팀, 870명을 유치했다.

선수단과 대회참가자, 선수가족들은 전남에 체류하는 동안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관광지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인구 유치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우수 시·군 격려를 위해 매년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강진군이 최우수상, 해남군과 목포시가 우수상, 여수시와 영광군이 장려상, 완도군과 무안군이 노력상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관광 홍보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교육청

시도교육청평가 '최우수'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 ▲ 교육의 디지털 전환 ▲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20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남교육청은 20개 평가 항목 중 시범 지표 2개를 제외한 18개 지표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 늘봄학교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세부 지표는 기준값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순천시

수능 수험생 관광지 무료입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제공되며, 순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대상이다.

무료입장을 위해서는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가 없더라도 고3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 학생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남도-테크노파크, 국비 79억 확보 정밀기계·메디컬社 디지털성장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2.0
1개 분야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지원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2.0' 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3년간 첨단 정밀기계 및 항노화·메디컬 산업 영위 기업의 디지털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의 정책 수단과 사업을 총동원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경남도는 2024년도 첨단 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1개 분야에 선정돼 2025년 사업비로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도와 경남TP는 글로벌 제조 산업 첨단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제조 기업의 AI 범용성 확대(AI·X), 디지털 혁신(DX), 친환경·ESG

경영 확대(GX)를 콘셉트로 '주력 산업 트랜스포메이션(AI, DX, GX)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내고자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수출마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중심대학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사업과 지역 첨단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분야 지원사업을 수혜받을 수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과거 국내 제조업 중심이었던 경남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제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첨단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로봇SI 산업 예산 312억 확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ABB융합 로봇SI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서 2025년 기업지원 예산으로 국비 3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 3월 78개 참여기업을 선정해 혁신마우처, 수출마우처,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전체 참여기업의 64.1%에 해당하는 50개 기업이 한 해 동안 1개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아 높은 실수혜율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312억 원의 지원 예산이 배정되며, 신규 인력 채용 지원, 기술보증기금 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제조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로봇SI 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지역 기업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 8개 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11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가 신청은 11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BB융합 로봇SI 제조혁신 과제"가 지역 로봇SI 기업과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확대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산업이 대구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아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공식슬로건 공모

내달 1일까지 진행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13일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함께해요! APEC 2025 KOREA'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개최 의의와 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 문구(국·영문 혼용 30자 이내)를 내용으로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과 상징성, 효과성, 적합성 총 4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차 실무부서 심사·2차 외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총 11건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12월 20일 예정돼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도지사상·경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공식 엠블럼과 함께 정부·경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홍보 매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김해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최우수'

환경부 주관 운영평가 선정

김해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로 환경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시행 첫 해인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12월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시는 최우수 지자체



김해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탄소 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해시

현판을 수여받고 담당공무원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포인트제'를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열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12일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도창, 민간위원장 김길동)가 주관하는 제1회 영양군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영양군 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소개했으며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